

COME & SEE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살롬채플
9:00A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워십
1부/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찬32/새68장)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이상태 장로 2부/이봉운 집사 3부/이상노 집사 4부/권승재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콰이어
1부/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한지현 작곡)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유아 세례식 Infant Baptism..... All together 다같이
2부/유수호(Ian) 3부/남하엘(Nathaniel)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요한복음(John) 6:16-21 All 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9:13-41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궁예(9) 예측불허한 상황 속에 붙드는 '아직'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33) 다 큰 사람의 간 큰 고백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주가 일하시네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방향 더듬이'를 정하는 일-2

The Task of Setting the "Directional Feeler" (Part 2)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그동안의 방향 더듬이, 교회표어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리더십의 변화 '어제의 축복, 내일의 사명', 선교에 도전 '하나님께 뛰어 들어라',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영광의 비상', 사역에 헌신 'Always Be there', 복음의 정체성 '여전히 Jesus Alone' 등. 그러나 제게 오래 남는 것은 그 말씀 때문에 움직였던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선교에 마음을 열며, 다음 세대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고 어려운 이웃을 품는 성도들을 보며 목회계획의 열매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특별히 베델교회가 올해 5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Come & See 50"라는 주제를 붙들었습니다. 성경의 회년은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다시 자유를 선포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며,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50주년은 이룬 것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50년 동안 무엇을 하셨으며, 이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가'를 묻는 시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정신을 예배와 설교, 선교 컨퍼런스와 다음 세대 사역, 장애 아동 체임버 오케스트라, 청소년 사역, 교회의 역사 기록과 출판, 선교사들을 위한 사역까지 가능한 한 회년의 정신으로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면, 또 교회가 커질수록 '작년보다 더 새로운, 또 다른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새로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목회자의 임무는 새로운 복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다시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올해는 무엇을 새롭게 할까?' 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더 많이 묻게 됩니다. 교회는 이벤트가 아닌 말씀으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닌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봄으로 살아나고 변화됩니다. 결국 모든 목회계획은 한곳,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 그 분을 더 분명하게 보고, 더 깊이 사랑하고, 닮아가며, 세상 속에서 그분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지난 목회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나뭇목회를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목회의 성공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떠난 뒤에도 무엇이 계속되고 있는가'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해의 목회계획을 세우면서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이웃을, 다음 세대를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으로 전도하러 나가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그해는 주님이 기뻐하신 목회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월간 목회 기록 중 발췌)

Looking back over time, I reflect on the directional feelers—our church mottoes. Change in leadership: 'Yesterday's Blessings, Tomorrow's Mission'; Call to missions: 'Dive into God; Beyond suffering to glory: 'Bound for Glory'; Devotion to ministry: 'Always Be There'; Identity of the Gospel: 'Still, Jesus Alone', and so on. However, what stays with me for a long time are the stories of the congregation whose hearts moved because of that Word. Seeing church members obey the Word, open their hearts to missions, give their time and resources for the next generation, and embrace neighbors in need, I realize what the true fruit of pastoral planning is. Especially as Bethel Church marked its 50th anniversary this year, we held onto the theme "Come & See 50". The Jubilee in the Bible is not a day to commemorate the past, but an event that declares freedom anew, returns things to their original place, and initiates a new future. Therefore, the 50th anniversary was not a time for us to boast about what we achieved, but a time to ask, "What has God done over the past 50 years, and where is He sending us now?"

We tried to connect that spirit—as much as possible in the spirit of the Jubilee—to our worship and preaching, mission conferences, next-generation ministry, Chamber Orchestra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youth ministry, documentation and publication of church history, and ministry for missionaries. When pastoring for a long time, or as a church grows larger, there are times when one feels pressure to show "something newer or another vision than last year." But the Gospel does not need to be renewed. We are the ones who need to be made new before the Gospel. A pastor's duty is not to invent a new gospel, but to make the unchanging Gospel heard once again in a changing world. So, these days, rather than asking "What should we do differently this year?", I find myself asking more, "What is the essence of the Gospel that we are missing?" A church comes alive and is transformed not by events, but by the Word; not by novel ideas, but by fixing its gaze back on Christ. Ultimately, all pastoral plans converge in one place: becoming a church that sees Jesus Christ more clearly, loves Him more deeply, grows to be like Him, and reveals Him to the world.

With retirement ahead, as I reflect on my past pastoral journey, I summarize my ministry like this. The success of ministry will be evaluated not by "how much work I did," but by "what continues even after I leave." So, whenever I draw up a pastoral plan each year, I ultimately return to one question: Have the congregation come to love Jesus, the Word, their neighbors, and the next generation more? And have they stepped out to evangelize to the world rather than remaining comfortable inside the church? If so, I believe that year was a ministry pleasing to the Lord. For it is not us who build the future of the church, but Christ, the Lord of the Church, who builds His church. (Excerpt from a contribution to Monthly Ministry)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예측불허한 상황 속에 붙드는 '아직' (요한복음 6:16-21)

1. 어둡고 큰 파도가 이는 풍랑 속에서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17절)라는 말씀이 던지는 뉘앙스는 무엇일까요?
2. 제자들이 만난 폭풍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막 6:48)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내가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삶의 영역은 어디 입니까? '주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어떤 은혜를 주고 있나요?(참고/히 7:25)
3.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을 때도 두려웠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후에는 더 두려워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이 주는 메시지를 제자들은 분명히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바뀌어야 합니까?(19절, 참고/욥 9:8, 시77:19)
4. 예수님은 폭풍을 먼저 잠잠하게 하시기보다 "내니(Ego eimi),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상황의 목소리, 두려움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크게 들리고 있습니까?(20절, 참고/출 3:14)
5.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더 깊은 폭풍을 대신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은 '폭풍의 부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이번 주 내가 붙들어야 할 한 문장을 정한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내려놓거나 순종해야 할 한가지는 무엇입니까?

적용하기



목회자 인사 동사목사

황모세 목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갈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베델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오신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저와 저희 가정을 불러 함께 걷게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벅찬 감격과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단 하루를 주신다면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라는 질문이 청년 시절 늘 제 마음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며 제 마음에 남은 하나의 답!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다." 그 고백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고,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걷게 한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 내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가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서로를 믿음의 가족으로 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목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한어권과 영어권이 한 복음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세워 주며, 앞선 세대의 믿음의 유산과 다음 세대의 새로운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온세대 공동체를 꿈꿉니다.

베델교회가 지금까지 지켜 온 귀한 믿음의 전통과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 헌신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와 이웃,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세워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품고 세우며, 한 가정의 변화가 교회와 세상을 향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공동체를 성도님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대학 시절 만나 2005년에 결혼한 아내 김수진과 세 자녀 이레, 로희, 성울입니다. 저희 가정 역시 베델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성도님들과 함께 웃고 울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가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라는 관계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시대와 세대를 함께 섬기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황모세 목사

사역 소개 IT팀

베델의 디지털 파수꾼들

베델교회 IT팀은 15명 남짓의 봉사자들이 교회의 네트워크와 컴퓨터, 그리고 보안을 위한 사역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어느 곳에서나 캠퍼스 WiFi인 'Bethel-Church'를 통해 교회학교, 셀모임, 카페 카드 결제 등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질 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쾌적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환경을 살피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데이터 사용량과 성도들로 인해 병목이 생길 때도 있지만, 베델의 다양한 사역들이 무선 인터넷 환경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때마다 주님의 은혜도 순조롭게 전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면서 혹시 있을 장애에 대비하여 백업용 장비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역의 예배실, 오피스, 사역팀에서 사용하는 100여 대의 컴퓨터에 대한 하드웨어 관리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독 및 유지 보수 등

이러한 섬김으로 매주 예배와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름에 진행되는 VBS 등록과 수납, 교회학교 체크인 서버, 셀리포트 등 온라인 웹 서비스를 구동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내 안전을 위한 보안 카메라들이 잘 작동하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며, 추가 설치하는 일도 섬기고 있습니다. Cyber Security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캠퍼스 내에 취약한 컴퓨터가 발견되면 보강 조치를 합니다. 임직 투표도 IT팀이 담당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담임목사 청빙 투표를 있었는데 팀원들과 여러 손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처럼 다양한 분야

의 팀원들이 하나님께 받은 귀중한 달란트로 기쁘게 섬기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IT팀의 일은 대부분 잘될 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다양해지는 사역들로 섬겨야 할 영역도 늘어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기에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배와 사역이 사고 없이 평안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길 때,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으시길 원하며, IT팀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송용훈 집사



Come&See 50 특집 14

베델의 여정

제게 베델은 시어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이 가득한 곳입니다. 갓 결혼해 모든 것이 낯설던 때, 시어머니와 처음 찾은 베델은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첫 예배를 드리며 저희는 베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린 세 아이를 데리고 예배드리던 저희를 위해 시부모님은 늘 자리를 맡아주셨고, 어머니는 전도폭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손녀를 돌봐주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베델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성도님들은 함께 울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계신 어머니,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베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델은 남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곳입니다. 성실하지만 일에 매여 살아온 남편과의 삶 속에서 저 역시 마음에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며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목사님의 권면으로 남편은 베

델동산에 올랐고, 그곳에서 밤새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남편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베델동산을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라난 곳입니다. 아이들 모두 베델에서 태어나 유아세례를 받고, 교회학교와 여와나, 여름 단기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며 이제는 모두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의 세계관을 베델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목회자들과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 덕분입니다. 아이들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신 모든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미연 권사

믿음의 고백



7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 어느덧 5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UCI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던 시절, 베델교회는 저에게 교회 그 이상의 곳이었습니다. 당시 5살, 1살이었던 어린 남매를 데리고 처음 베델교회의 문을 들어섰는데, 어느새 아이들은 17살, 13살이 되었습니다. 처음 분당 문을 열어주시던 안내 권사님부터 김한요 담임목사님의 설교 모습까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대형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말씀하시는

내 삶의 첫사랑

것 같았습니다. '어서 와. 이 큰 교회에도 내가 있단다.' 그렇게 저는 앞뒤 재지 않고 베델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베델교회는 제게 처음으로 '내 집보다 더 편안한 곳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교회입니다. 매주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복음은 제 눈을 뜨게 했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게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베델교회가 아니었다면 깨닫지 못했을 것들을 아시고, 저를 그곳까지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5단계 훈련을 모두 받기로 결단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했습니다. 7년의 시간을 마치고 베델교회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온 지도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여름, 4년 만에 다시 열바인을 방문했을 때 베델의 가족들은 변함없이 저희 가족을 따

그리고 베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 가는 세상 속에서, 제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주는 곳입니다. 말씀묵상과 아침 영상, 설교를 통해 제 삶을 돌아보고, 셀과 여러 섬김의 공동체를 통해 주님 안에서 하나 됨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와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건강으로 힘들어할 때 예방팀을 통해 받은 음식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경험이었습니다. 베델은 제게 단순히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 있고 삶을 다시 세워가는 곳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베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안아주고, 격려해 주고, 집과 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도 될까' 싶을 만큼 넘치는 사랑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 너도 다 돌려줘. 그러면 되잖아.' 하나님의 집, 베델교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도 계시고 그곳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존재의 전부입니다. 제 삶의 첫사랑이 되어준 베델교회와 김한요 담임목사님, 그리고 저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던 모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백호진 집사

교회학교

유아부 교사간증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서 2025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유아부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운 경험으로 유아부 봉사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예배에 집중하도록 돕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제 얼굴을 알아보고 반갑게 달려오고, 마음을 열어 주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제가 아이들에게 더 큰 위로와 기쁨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부 아이들은 부모님과 떨어져 처음으로 혼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아

직 모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교회의 뜻함과 선생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처음 느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제 역할이 귀하고 조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따뜻하게 안아 주며,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청년 시절 잠시 교육부에서 봉사했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그때 부족했던 제 모습이 생각나면서 마음 한편에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맡겨 주신 이 자리만큼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 저를 만지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이들의 맑은 웃음과 작은 손길을 통해 제가 위로 받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때로는 제가 아이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누군가를 위해 일하기 위해서만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리에서 저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채워 주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 경험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구하며 섬기고 싶습니다. 처음 담임을 맡았던 아이들이 졸업하고 새로운 아이들이 올라온 지금, 또 어떤 만남과 은혜를 허락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아이들의 작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 저 역시 믿음 안에서 자라 가는 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과 저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계속 섬기겠습니다.

오은주 집사

부설 사역
한국학교

멋, 맛, 흥으로 가득한 은혜의 한가위!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아 베델한국학교에서는 미국에서 자라나는 2·3세 아이들과 함께 전통 문화 행사를 열었습니다. 머나먼 이곳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터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환호 속에 열린 한복 패션쇼는 우리 옷의 고운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곱고 화사한 빛깔의 전통의상과 함께 노리개, 비녀, 복건 등 아기자기한 전통 장신구의 멋과 쓰임새를 하나하나 알아보았습니다. 우아한 한복 자태를 뽐내며 런웨이를 걷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얼굴에는 웃음꽃과 자부심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특히 화사한 족두리를 쓰고 발그레한 연지곤지를 곱게 찍은 신부의 수줍은 미소와 사모관대를 차려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신랑의 늠름한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며 전통 혼례의 깊은 멋과 흥겨운 잔치 분위기를 듬뿍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떡 만들기 체험장에는 고소한 향기와 아이들의 활기찬 함성이 가득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쿵덕쿵덕 힘차게 떡매를 내리치고, 쫄쫄한 떡을 굴려 콩고물을 골고루 묻히며 직접 인절미를 만들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고물의 구수한 맛에 아이들은 연신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한편에서는 신명 나는 전통놀이 한마당이 활짝 펼쳐졌습니다. 맘처럼 쉽게 굴러가지 않아 엉뚱한 데로 굴러가는 굴렁쇠를 뒤쫓아 뛰어가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제기를 하나라도 더 차보려 발을 연신 올려 찻습니다. 채를 휘두를 때마다 팽팽 돌아가는 팽이를 보며 신기해하는 등 교실 안에서 글자를 익히는 것을 넘어 온몸으로 고국의 옛 놀이 문화를 흠뻑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목소리로 부른 아리랑 선을 아

래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듯,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한 뜻이 되어 섬겨주신 모든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뜻깊은 선물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단단한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영미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동사목사: 황모세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QTin: 조동현 목사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화평/온유/섬김: 박성권 목사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은혜/새가족/BCA: 배홍수 목사
민음/예배: 이형석 목사
BGC 담임: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예수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예수채플: 공병주 목사
예수채플: 최요셉 전도사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영어중등부: 신재민 인턴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성우 목사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환우: 정티나 목사
Beyond the Blue: 오경희 전도사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예수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조주은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음향: 강창위, 한 진
디자인: 박선경
웹/IT: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새가족 환영회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베델교회에 등록하시어 소중한 가족이 되신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기쁘게 맞이하고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을 위해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목회진과 리더십,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동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베델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받으신 모든 분은 가족과 함께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아직 참석 여부를 전하지 못하신 분들은 미리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10월 10일(토) 오후 5시
(행사 전 담임목사님과 사진 촬영이 오후 4시 20분부터 있습니다.)

▶ 장소: 유년부실

▶ 참석 대상: 새가족 성도님과 가족

▶ 문의: 석승진 장로 (949)232-0872, 황익진 집사 (949)796-0708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0월)	10/11: ①부-이상원	②부-이석희	③부-이완희	④부-이정수
	10/18: ①부-이승호	②부-이선갑	③부-이우용	④부-김문정
	10/25: ①부-정현근	②부-이양수	③부-윤대호	④부-김승진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10월)	10/10: 김정범	10/17: 이영복	10/24: 이희정	10/31: 이원배
강단꽃(10월)	10/4: 김순옥, 엄기환	10/11: 윤성자, 윤주원, 최경식	10/18: 이수민	10/25: 이인철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이석완(심장내과), 간호사-이옥선

다음주 | 의사-권석원(치과), 간호사-Tuna Nguyen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이석배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장)

*선교기관 | 나동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 **황모세 목사님과 함께 떠나는 수요일섬유여행 'Kingdom Perspective: Covenant'** 이번 주는 두 번째 시간으로 '보이지 않는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창조 언약에 대해 함께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경의 큰 흐름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함께 품는 귀한 말씀의 자리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장소: 10월 7일(수) 저녁 7시, 본당

자녀 돌봄/문의: K-5학년 대상, 조광중 집사 (949)706-4168

◆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시고 베델가족이 된 새가족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를 갖습니다. 목회자 및 교회 리더십분들과 함께 하는 만찬과 은혜로운 교제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일시: 10월 10일(토) 오후 5시(4시 20분부터 담임목사와 미니데이트 사진 촬영)

장소/문의: 유년부실, 석승진 장로 (949)232-0872, 황의진 집사 (949)929-5620

◆ **OICOS 예배 및 엘리사 새벽기도회** 모든 성도와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중에는 신혼부부 & 기쁨 목장 중심으로 엘리사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엘리사 새벽기도회 일시/장소: 10월 6일(화)~9일(금) 오전 5시 30분, 본당

엘리사 새벽기도회 대상 & OICOS 예배 특송: 신혼부부 & 기쁨 목장 (박경철 목사 담당)

OICOS 예배 일시/장소: 10월 10일(토) 오전 6시, 본당

OICOS 강사: 황모세 목사

◆ **세례/입교 신청** 세례 및 입교식이 11월 22일 주일 3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오리엔테이션, 세례 교육 및 문답 리허설을 참석과 수료해야 하며 CIM, BYM, 예살, JM, 소망부는 각 부서별로 교육을 진행하오니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신청 기간/방법: 9월 20일(주일)~10월 11일(주일), 홈페이지 및 QR 코드

세례 자격: 만 12세 이상(BYM/CIM 이상) 및 베델교회 등록교인(6개월 이상 출석)

입교 자격: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2세 이상(BYM/CIM 이상)

전체 오리엔테이션: 10월 11일(주일), 오후 1시, 비전채플

대상: KM 성인, 예살, 중고등부(BYM과 CIM), 신청 학생의 학부모

교육 일시: 10월 18일(주일), 25일(주일), 11월 1일(주일) 오후 12시 45분, 임마누엘채플

문답 일시: 11월 15일(주일) 오후 1시 30분, 목회자실

전체 리허설: 11월 21일(토) 헬시바 기도회 후 오전 8시, 본당

문의: 박재문 장로 (949)241-4987

◆ **큐티인 10월호 판매** Q'Tin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10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Bethel Announcements

◆ **Back to Bethel: A Homecoming**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베델의 온가족을 '홈커밍 예배'로 초대합니다. 한때 베델의 주



일학교를 경험했던 우리의 자녀들과 오랜 친구들을 초대해 주세요. 베델의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로 교제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① QR코드로(또는 부스에 오셔서) 초대하고자 하는 자녀/친구의 정보를 등록하시면 벡투베델 팀에서 초대장을 발송해 드립니다. ② 다양한 음식과 액티비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기도와 재정후원, 봉사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사인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11월 21일(토) 오후 4시 30분, 베델교회(코트야드에서 식사, 본당에서 예배)

문의: 김인규 장로 (949)331-8419

◆ **소망 오케스트라 후원 바자회** 10월 11일 주일 코트야드에서 1부 예배 후부터 오후 1시까지 소망오케스트라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김병인 장로 (714)904-2686, 최 신 권사 (949)331-5169

◆ **김한요 목사 주일설교 USB 판매** 김한요 목사의 주일설교 'Come & See 50-미라클'과 'LAF-호세아서 강해'의 전편을 담은 USB를 코트야드 부스에서 판매(각 \$10)합니다. 전도에 널리 활용하실 수 있으며, 판매금액은 전액 베델장학사역을 위해 쓰여집니다.

◆ **상당해 드립니다** 개인 생활과 가정, 자녀 문제 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매주 화요일 상담 협동 목사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행정사무실이나 홈페이지,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박성권 목사 (718) 490-9931



◆ **기도해 주세요**

온두라스 단기선교가 10월 5일(월)~10월 10일(토)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파송기도합니다.

◆ **축하해 주세요**

– 오늘 2부 예배에 유승재/이수미 집사의 아들 유수호(Ian)의 유아세례식이,
– 오늘 3부 예배에 남경민/김해람 성도의 아들 남하엘(Nathaniel)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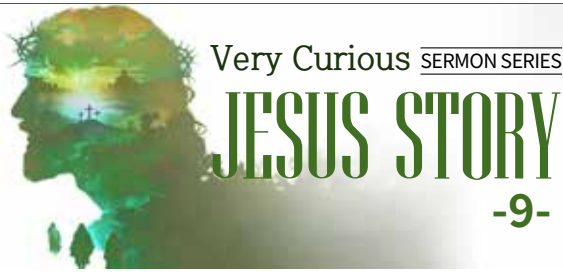
◆ **위로해 주세요**

–故 김종철 장로님(김훈태 성도의 부친, 손지혜 성도의 시부)께서 9월 26일(토)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故 박영기 집사님(박경이 집사의 남편)께서 9월 30일(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 AWANA(아와나):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헬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일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 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Holding onto 'Not Yet' in Unpredictable Situation (John 5:1–18)

1. In the midst of dark and stormy waves, what nuance is conveyed in the phrase, "Jesus had not yet come to them" (v. 17)?
2. The storm the disciples encountered happened while obeying Jesus' command. Although the disciples could not see Jesus, Jesus was watching them 'straining at the oars' (Mark 6:48). In what area of your life are you currently straining at the oars? What grace does the truth 'the Lord sees me even now' bring to you? (Ref: Hebrews 7:25)
3. The disciples were afraid when Jesus had not yet come, but they were even more terrified after He appeared. The disciples clearly received the message conveyed by Jesus walking on water. Having received this message, how should our worship toward God change? (v. 19, Ref: Job 9:8, Psalm 77:19)
4. Before calming the storm, Jesus first said, "It is I [Ego Eimi]; do not be afraid." Right now, which voice sounds loudest in your heart—the voice of your circumstances, the voice of fear, or the voice of Jesus? (v. 20, Ref: Exodus 3:14)
5. On the cross, Jesus endured a far deeper storm on our behalf. Therefore, our peace lies not in the 'absence of the storm', but in the 'presence of Jesus'. What is one sentence you will hold onto this week? And holding onto that Word, what is one thing you practically need to surrender or obey?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